



KBS교향악단

KBS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제1회 여수음악제

9월 1~3일 예술마루서...여수상의·KBS교향악단 업무협약

여수상의 3억5천만원 지원 ... 여수 순천 광양 초중고생 오디션

모든 문화 장르와 마찬가지로 '클래식' 역시 중앙집중 현상이 두드러진 장르다. 그런 상황에서 경남 통영에서 열리는 통영국제음악제와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평창대관령음악제는 '지역' 거점의 클래식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탄생 100년을 맞은 윤이상을 기념하는 통영국제음악제는 오는 31일부터 봄 시즌을 시작한다. 전용음악당까지 마련한 통영국제음악제는 올해 빈 필하모니 앙상블 등 국내외 클래식 아티스트들이 집결한다. 몇년 뒤 출범한 평창대관령음악제 역시 발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정명화, 정경화 씨가 예술감독을 맡은 대관령음악제는 7월에 열린던 데서 확장, 지난해부터는 '평창겨울음악제'도 개최하고 있다. 제즈와 클래식의 결합이 인상적인 겨울음악제의 경우 좀 더 대중적인 레퍼토리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여수에서도 대규모 클래식 축제가 열린다. 지역 클래식팬들에게 반박같은 소식이 다.

여수상공회의소(회장 박용하)와 (재)KBS교향악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KBS

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제1회 여수음악제'가 오는 9월 1일부터 3일 간 GS칼텍스 예술마루에서 열린다.

여수상공회의소는 15일 상의 중회의실에서 (재)KBS교향악단(사장 박희성), 여수시, 여수교육지원청, GS칼텍스 예술마루, 해안동맹리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여수음악제의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축제 예산은 여수 상의가 전체 3억 5000만원을 모두 마련했고 이중 일부는 박희성이 사재를 출연했다.

클래식 음악축제는 상의를 중심으로 논의돼 왔다. 여수 지역 문화 수준을 높이고, 더불어 해양 관광도시로서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데 클래식 축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지역 청소년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연주자와 협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박용하 회장이 KBS 교향악단 관계자들과 교류를 이어온 점도 음악회 개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조만간 축제 사무



여수상의와 KBS교향악단이 주최하는 '여수음악제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이 15일 여수상의에서 열렸다.

국이 구성돼 출연진과 프로그램 확정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현재 1일 열리는 개막 무대는 KBS교향악단 음악감독 요엘 레비가 지휘하는 KBS교향악단 공연이 확정됐으며 2일에는 많은 관객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여수박람회장을 활용한 야외 공연을 검토중이다.

눈에 띄는 점은 지역 청소년들의 참여다. 5월 중 여수·순천·광양 지역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실시해 6월부터 8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KBS교향악단 단원들이 직접 학생들의 레슨을 진행한다. 우수 학생들은 3일 폐막 공연에서 KBS교향악단과



요엘 레비

협연할 기회를 갖는다. 공연이 열리는 예술마루는 세계적인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가 설계한 건물로, 1021석을 갖춘 대극장과 주변 공간이 잘 어우러진 인상적인 장소다.

박용하 회장은 "여수음악제는 여수 지역의 새로운 축제의 시작이자 여수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행사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음악제가 여수지역 노사화합과 관광객 유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생활문화예술활동단체 등 176곳 선정

광주문화재단, 4억7000만원 지원

광주문화재단이 15일 '생활문화예술활동단체지원사업', '생활문화예술 동아리지원사업' 공모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지원사업 지원규모는 총 4억 7000만원으로, 176개 단체가 선정됐다.

생활문화예술활동단체지원사업은 공연·전시·전통예술·문학 등 다양한 분야로 공연 '소리모아 봉사단' 등 32개, 전시 '(사)한국장애인문화광주광역시협회' 등 17개, 전통예술 '(사)한국전통문화연구회' 등 9개 단체, 문학·다원 '호남시조시인협회' 등 18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총

76개 단체에 3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생활문화예술동아리지원사업은 청소년 동아리 '광덕중학교 오케스트라' 1개 단체와 청년 동아리 '포스트 뮤직사운드' 등 37개 단체, 일반 동아리 '빛고을 클래식 기타합주단' 등 62개 단체를 포함해 총 100개 단체에 1억1000만원을 지원한다.

재단은 선정 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23일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에서 보조금 신청절차 및 정산관련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문의 062-670-744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불로 보는 역사문화 그리고 한국인의 화(火)'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역사문화시민대학 개강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불로 보는 역사문화 그리고 한국인의 화(火)'를 주제로 제7기 역사문화시민대학을 개강한다.

올해 주제는 대한민국 역사를 새롭게 썼던 '촛불'집회와 관련, '불'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29일부터 4월19(수요일 오후 2시)까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세미나실에서 강좌 4회와 경남 산청 문화탐방으로 구성된다.

29일 열리는 첫 강좌는 오수성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한국

인의 화(火) 그리고 트라우마'에 대해 강의한다. 이어 4월5일 '불을 찾아서'(박영만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사), 4월12일 '불과 민속신앙'(엄수경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공동대표), 4월19일 '촛불과 광장민주주의 그리고 권력'(박해광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이 이어진다. 4월26일에는 구형왕릉, 동의보감 등 경남 산청으로 떠나는 인문학여행을 진행한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45명으로, 23일 까지 전화(062-234-2727)로 접수하면 된다. 수강료 4만원(교재비·문화답사비 포함).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전남소비자교육중앙회, 21일 세계 물의 날 행사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전라남도지부(회장 이승자·사진)가 세계 물의 날(3월22일)을 맞아 '하수의 재발견, 지속가능한 발전 하수'를 주제로 21일 기념행사를 연다.

전남소비자교육중앙회는 화순군 하니울 문화스포츠센터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 절약 및 오염 예방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물 사랑 10대 수칙' 실천 결의문 채택한다.

또한 '물 정보 전시' 공간을 마련해 하수 문제점, 기후변화, 세계 물 부족 현황을 비롯해 생활 속 물 절약 방법 등을 소개한다.

그밖에 한호연 한국수자원공사 광



이승자

주전남지역본부장이 강사로 나서 '하수의 재발견, 지속가능한 발전 하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물 절약 캠페인도 펼친다. 이승자 회장은 "물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물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물 교육을 통해서 물의 소중함과 절약 및 오염 예방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판소리 다섯바탕전 '5인5색'

18일 전통문화관 다섯명의 명인 공연

다섯명의 명인이 판소리 다섯바탕 적벽가, 흥보가, 춘향가, 수궁가, 심청가를 각자의 색깔로 풀어내는 공연이 펼쳐진다.

전통문화관이 오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토요일공연으로 사)한국판소리보존회를 초청 '판소리 다섯바탕전 5인5색' 공연을 선보인다.

첫 번째로 적벽가 중 '군사설움' 대목을 운현선 소리, 주현주 고수가 시작하고, 두 번째로 박초월제 흥보가 중 '흥보 박타는' 대목을 고희성 소리, 김보람 고수로 이어

간다.

세 번째로 춘향가 중 '이별' 대목을 김다은 소리, 주현주 고수가 선보이고, 네 번째로 강산제 수궁가 중 '용왕탄식~양성가' 대목을 이미소 소리, 김보람 고수가 들려준다.

마지막으로 강산제 심청가 중 '황성 올라가는 대목'을 김다정 소리, 주현주 고수가 선보이며 이날 공연을 마무리 한다.

문의 062-232-159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내 새끼는 내가 먹여 살린다!

아제 감성 느와르

아빠本色

매주 수요일 밤 9시 30분

주영훈 YoungHoon Joo 김구라 Gura Kim 이한위 HanWi Lee

CHANNEL